

광양세풍산단 진입로 평면교차로로 바꾸나

신대휴먼그린단지 개발 백지화로 교통량 증가 예상치 줄어 광양시 교통량 조사 의뢰...지하차도 개설 필요성 사라져

광양시가 광양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지하차도'보다는 '평면교차로' 개설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신대 휴먼그린단지'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교통량 증가 예상치가 줄어들어 지하차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 교통량 조사를 의뢰한 결과, 평면교차로를 개설할 경우 교차로통행 시간 등을 조정하면 도로 서비스 수준이 C등급까지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D등급을 받아 평면교차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지하차도 개설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광양경제청이 '지하차도'를 고수하면서 평면교차로 서비스 등급을 'F'로 제시한 것으로,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물이다.

교통소통 서비스 수준 등급은 D등급을 기준으로 A(매우 양호), B~C(양호), E(포화), F(매우 포화) 등으로 나뉘며, 국토부는 세풍산단 진입도로 교차로에 대해 D등급 이상이면 평면교차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양시의 이번 교통량 조사 결과는 경제청이 그동안 내세웠던 교통량조사 결과와 다른 것으로, 지난 2014년 8월 신대지구 내 택지개발지구였던 '신대휴먼그린단지(2.33km²)'의 지정해제로 도심을 형성할 도시계획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광양경제청 개발 대상 지구였던 '신대 휴먼그린단지'가 계획대로 새로운 도심지가 형성됐다면 교통량 증가에 따라 신대-세풍산단 연결도로 조성 및 지하차도 조성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겠지만, 개발계획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통량 증가 예상치가 줄어들면서 지하차도 명분도 약해졌다는 것이다.

신대 휴먼그린단지 지정해제 3년이 지난 후, 광양시가 의뢰해 다시 조사한 두 기

관의 결과가 '평면교차로 개설 가능'으로 나왔다는 점이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지하차도 설치 주장 근거는 국토부의 기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광양시의 교통량 재검토 결과를 기본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하고, 사업비도 반납이 아닌 재투입 되게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와 광양경제청은 최근 세풍산단 진입도로 계획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매주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국토부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광양=김정원기자 kkw@kwangju.co.kr

장흥 대덕읍민의 날, 번영·화합 다짐한다

10~11일 행사 개최

조항조·김혜연 등 공연

장흥군 대덕읍민의 날 행사가 10~11일 한국말산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장흥군 대덕읍민영회(회장 김형철)은 "10일 오후 7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이틀간 '제24회 대덕읍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4000여 대덕읍민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읍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10일 오후 7시 전야제에는 조항조, 김혜연, 차영주 등 유명 가수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며,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다.

이틀째인 11일에는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날은 풍물패 공연과 거리퍼레이드, 대북공연, 라인댄스 등을 비롯한 각종 민속경기와 체육경기 등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오후 문화행사에서는 5인조 악단 공연과 행운권 추첨이 실시된다.

김형철 대덕읍민영회장은 "서민경제의 낙후한 품이 시작되는 대덕읍은 인정 많고 청정 농수산물 많이 나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읍민의 날 행사에 많은 향우와 읍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이도 예정돼 있다.

이틀째인 11일에는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날은 풍물패 공연과 거리퍼레이드, 대북공연, 라인댄스 등을 비롯한 각종 민속경기와 체육경기 등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오후 문화행사에서는 5인조 악단 공연과 행운권 추첨이 실시된다.

김형철 대덕읍민영회장은 "서민경제의 낙후한 품이 시작되는 대덕읍은 인정 많고 청정 농수산물 많이 나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읍민의 날 행사에 많은 향우와 읍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안과 치료비 지원해드려요"

장성군,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장성군이 안과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과질환 치료비 전액을 보조하는 '개인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추진되는 수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기준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60세 이상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보건소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보건소 방문보건계(061-390-8340)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4랑하는 4랑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부안군은 최근 부안제일고등학교 앞에서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학생 위생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예방 홍보 활동을 했다. 부안군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은 날인 '4랑하는 4랑에게 안전을 선4하는 날'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해 매달 시행하고 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김생기 정읍시장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김생기 정읍시장이 2년 연속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했다.

김시장이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권의 보호와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선 5~6기 정읍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시장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피해 구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해에만 모두 3153건의 상담 접수와 피해구제 활동을 펼쳤다.

김시장은 또 어르신과 취약계층, 결혼이주 여성 등 피해 우려 계층 1100여명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 부단



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쳤고, 매주 2회에 걸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물가 조사 등을 통해 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시장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의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소비자 입법, 행정 등 7개 분야에 대한 매년 시상이 이뤄지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 쌀 '천년의 솟씨'·참뽕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부안군의 대표브랜드 부안쌀 '천년의 솟씨'와 부안참뽕이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 미디어네트워크와 브랜드인터네셔널 글로벌경쟁력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17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의 산업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

부안쌀 '천년의 솟씨'는 쌀 부문에서 1

위, 부안참뽕은 오디(뽕)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

부안쌀 '천년의 솟씨'는 품질 좋은 쌀을 제공하기 위해 토양관리부터 적기수확까지 까다로운 10여가지의 재배기술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생산에서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제도인 GAP 인증을 받은 쌀만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간직지는 2200ha의 농지에

'천년의 솟씨' 쌀 단지를 조성해 1만5400톤을 생산출하했으며, 연간 19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2005년 침체기에 접어들어 양잠산업을 기능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선정, 뽕 기반 시설에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안군 대표 관광지인 누에타운과, 참뽕연구소 및 가공연구센터, 참뽕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등 부안뽕 6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디와 뽕잎, 누에를 이용한 술, 음료, 봉잎차, 소스류, 과자류, 미용팩, 뽕비빔밥, 뽕빵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 부안관광 산업과 연계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계기로 부안쌀 '천년의 솟씨'와 '부안참뽕'이 대한민국 대표 명품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전국국제영화제, 내일부터 개막·폐막식 입장권 판매

일반 영화 예매는 13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제18회 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 입장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영화 예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올해 영화제에는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와 폐막작 '서바이벌 패밀리' 등 58개국 22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티켓 가격은 개·폐막식, 심야상영, 마스터 클래스 등은 1만2000원, 일반 상영작과 전주 돔, 토코 클래스 상영작은 6000원이다.

티켓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www.jiff.or.kr)에서 한 영화당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화)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사무소 뒷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팬션·시향·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장기투자 매 최적 땅 7416㎡ 바닷가임 1억4천
- 담양군 금성면 경관마을 9710㎡ 전원주택 단지적합 9억2천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마을 남향땅 2738㎡ 매도 2억8백

투자·매도·교환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과도 인근 3억5천
- 충흥동 소방도로상업지 175㎡ 자동차시설 적합 3억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 투자에 양호함 10억천
- 유동 상업지 331㎡ 상가·원룸 등 적합 매도 4억6천
- 월산동 보리야파트부근 상가1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장흥군 장흥읍 공업지역 2390㎡ 투자에 좋음 85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천
-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전 5820㎡ 1억2천, 1965㎡ 3천6백
- 대안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무안군 무안읍 전 5293㎡ 농장 전원생활용 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복곡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정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상가건물

- 서구 교통요지 대지 1657㎡ 건물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근너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충정로5가 도로점 대지 265㎡ 건평 995㎡ 매도 11억천
- 월산동 문진리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은 공실임, 은행 2억천 보증금 9300 월 350천 3년된 건물 매도 6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